

생기므로 장기사용은 금물이다.

『부타조리딘(Butajolidin)』은 체액을 저류시켜서 부종, 뇌압상승등이 오고, 두통, 현운, 심기항진, 위궤양, 출혈, 황달, 발진, 교감신경장애 등이 생기고 경련, 기타 심장, 간, 신장, 위장질환이나 특이체질에는 금기로 되어있다.

『키닌(Quinine)』에도 오심, 구토, 설사, 전신이완, 발열, 이명, 현운, 시력장애등이 오고, 임신 시신경염, 알레르기에는 금기로 되어있다.

Ciuchophen은 주로 뇌산 배설을 촉진한다. 간 신장질환, 임신, 술중독 등에는 금기로 되어있다.

Carisoprodol은 수기, 쇠약, 발진 등 부작용이 있다.

기타 수많은 진통·해열제가 나와 있으나 주되는 약에 부작용방지제, 진정제 향료, 소화제 기타 여러가지를 섞어서 만든 약들이다.

진통만을 목적으로 하는 마약계통으로는 『몰핀』을 위시하여, 『코데인』 『디맥롤』 『다리콘』 『탈원』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아편의 부작용이나 중독증상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으므로 생략한다.

〈필자=현양의대 신경내과 교수〉

발열 부작용에 특히 주의를

수액제제



元 鍾 德

오늘날 수액제제(輸液製)는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으므로 환자를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수액을 선택하는 것은 유능한 전문 의사도 세밀한 검사 성적이 나오기전에는 어려운 때가 허다하다.

수액을 주사하였을때에 일어나는 부작용중, 과거에는 발열이 가장 큰 문제였으나 수액셋트의 불완전 소독 등으로 일어나는 발열부작용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수액의 투여량이나 속도관계로 심부전(心不全)이나 폐수종(肺水腫)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또 K, Ca 또는 각종 전해질수액은 각기 다른 기전

약품 남용의 해독

작용(機電作用)을 하므로, 직접 간접으로, 심장이나 폐기능에 장애를 줄 수 있다.

특히 고장액(高張液)이나 대용혈장(代用血漿)을 환자에 주고 오한, 안면 창백(顔面蒼白), 맥박소실(脈搏消失) 혈압추정부진등 증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주요수액제제를 분류 소개하여 제제의 선택에 있어서 주의할점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전해질수액(電解質輸液)

저혈증(低血症) 환자에 도 생리적식염수 또는 고장식염수(高張食鹽水)를 준다. 저Ca 혈증환자(低Ca血症患者)는 『그루콘』산 Ca액을 低K 혈증환자에는 염화칼리액을 『아시도우시스(酸症)환자에는 중환산소—다액을 『알칼로우시스(알카리증)』환자에는 염화암모늄을 준다.

링겔액, 하나트민액 등은 삼투압농도를 높이고져 공급한다. 또 탈수환자에게 급속히 주사하여 순환부진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장기적으로 공급하면 유증, 고 Na 혈증(高 Na血症)을 일으키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저장전해질제제(低張電解質製劑)는 혈청보다 저장액이며, 주로 생리적으로 필요한 수분전해질의 보급을 목적으로 준다. 대표적인 제제는 1/2생리적식염수액 및 K보급목적을 겸한 『다

로우씨액』 등이다. 이노가 될때까지는 K는 20mEq/L 이상수액을 주어서는 안된다. Na는 50mEq/L 이상수액을 계속 주게되면 부종(浮腫)이 생긴다.

당질수액(糖質輸液)

포도당 이외의 과당 솔비톨 키시리톨등 제제가 있다. 포도당제제 이외는 당뇨병환자에게도 쓸 수 있다. 이 제제는, 지질대사의 개선 및 『케토—시스』의 개선효능이 크다.

교질수액(膠質輸液)

교질삼투압을 상승시켜서 순환혈장량을 증가시키고 또 이를 유덱스트란제제 제라친제제 및 인혈장제제가 있다.

「덱스트란」제제는 아니휘락시 또는 심정지(心停止)등 심한 부작용을 일으켜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므로 임상에는 유의하여야 한다.

「제라친」제제는 Na 농도가 120~146 mEq/L 이므로 유증환자에는 사용할 수 없다. 혈장제제는 신장 또는 간장장애로 생긴 유증 또는 복수환자에 가장 이상적인 효능을 볼 수 있으나 고가인 것이 결점이다.

삼투압이뇨제(滲透壓利尿劑)

마니톨제제와 뇨소제제가 있다. 삼투압이뇨작용으로 부종 또는 희비성

특 집

(稀秘性) 低 Na 혈증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다. 또 혈액 관문간의 수분을 혈관내로 유출시키므로 뇌압항진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노소제제도 효능은 적으므로 임상적으로 잘 사용 안되고 있다. 이노가 잘되면 Na 나 수분의 배설이 많아지므로 전해질 이상을 일으키므로 이점 유의하고 조절해 주어야 한다.

끝으로 적합한 수액을 잘 선택하는 것이 부작용을 방지할수 있으며 그러자면 수시로 검사하여 환자체내의 부족되는 수액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할 것이다.

〈필자=서울 東山病院 내과과장〉

이런일 저런일

이상한 지명(地名)

태국의 수도 『방콕』의 공식 명칭은 Krungt'ep이다. 신성한 사도(使徒)의 도읍이란 뜻이다. 그러나 1782년, 이 도시가 창설될때의 이름은 빠리어(語로 158자의 긴 이름을 가지고 있다. 즉 krungetpmahanakornbowornratanakosinmahintarayudhayamahadilokponoparatanarajthanibvriromudomrajnivesmahasatarnamornpimarmavatarsatitsakatattiyavisañukamprasit.

또 가장 짧은 지명을 가진 곳은 블란서 손부 지방의 인구 143명의 마을인데, 이름은 『Y』.

뉴웨이에도 『A』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는데 발음은 『아우』라고 한다고.

마음대로 쓰는 것은 절대 삼가야

구충제



関 弘 基

전혀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

이상적인 구충제라면 기생충에 대해서는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인체에는 전혀 부작용이 없어야 되겠으나 아직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약제는 없으며 구충제마다 다소간의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더욱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의사의 확진이나 적절한 처방없이 막연하고도 무계획한 약제의 사용, 독성이 강한 약제의 병합사용 또는 올바른 구충효과와 판정없이 임의로 약제를 입수 연용하는 경향이 상습화되어 있어 구충하더라도 도리어 자신의 건강을 저해케하는